

영원한 복음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다윗 -복음으로 여는 사무엘하- 사무엘하 7:28-29, 마태복음 1:1

정윤돈 목사님

- * **삼하7:28-29**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 * **마: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신중하며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평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믿음도 있지만 그냥 덮어놓고 믿는 스타일도 아니다. 목사님들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와닿는 설명이 없었다.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성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질문하다가, 나중에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냐고 질문한다. 만약 성도님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동산으로 간다면 선악과 따먹었냐? 물으면 절대 안 먹는다고 하신다. 그러나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중독이고 불신앙이다. 다들 선악과를 몇 박스씩 따먹는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날마다 몇 박스씩 따먹는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 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잘못한다. 안 그런 사람은 없다. 성경에 미워하면 살인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간다. 왜 그럴까? 날마다 그리스도하라는 뜻이다. 날마다도 아니라 매시간, 매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사탄의 함정, 틀, 울무, 정죄, 나의 만족,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돌아간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신다. 그리스도 외에 강조하는 모든 것은 다 틀리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해야 하나고 하는데, 보기 좋으면 하면 된다. 날마다 크리스마스다. 그걸 가지고 절기나 뭐냐 강조하면 틀리다. 우리가 강조할 것은 오직 복음이고 그리스도다. 다른 길 강조하면 율법으로, 사탄으로 간다. 귀신과 사탄의 역사는 돌아가면서 역사하는 것 같다. 역사하다가 그 사람이 복음이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직장에서도 귀신이 돌아가면서 역사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한다. 항상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 완전복음이 되어야 한다. 이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기도 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사실 다윗과 아브라함이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

중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경을 깊이 알면 다양한 삶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이해된다. 다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다. 창세기 3장 원죄를 짓고 사람은 숨었다. 여러분의 자식이 다녀와서 뭔가 숨긴다면 이상한 일을 한 것이다. 대우가 망하기 전에도 다 해먹은 사람은 말 안 하고 숨졌다. 그게 다 창세기 3장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답이고 결론이다. 다윗이 위대했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목사님과 선생님과 부모님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모든 문제해결자,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아무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뭔가에 중독되어도 구원은 받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예배와 전도에 중독되어야 한다. 그게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다면, 거짓 없는 행복이 그 속에 있다. 사탄은 다른 데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속인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복음을 알고 있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인본주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다. 성격이 못되고 더럽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부족해서 넘어질 때가 많다. 다윗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사탄에게 넘어지고 인본주의에 빠지는 모습이 있다. 그러다가 정신 차려질 때 고백의 기도를 했다. 우리도 그 시간을 늘 늘려야 하고, 시간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영원한 복음의 망대’와 ‘신앙의 모델’로 세워주셨다. 새가족들은 처음에 장로님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원래 그런 분이셨다. 참사랑교회에 와서 상태 괜찮아지신 분들이 많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이신 분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복음 때문에 상태가 좋아진 상태다.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계속 성장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신앙의 영적단계는 천 가지 단계, 만 가지 단계가 있다. 우리는 중직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할 때마다 시험이 든다. 장로가 되어서도 헌신이 뭔지, 전도가 뭔지 모른다. 선교가 뭔지 배워간다. 성장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목숨 걸고 헌신하는 영적 서밋이 된다. 어떤 상황에도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영적 서밋의 단계까지 성장한다.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태워 죽이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죽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주신다.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물고기가 물에 있으면 행복하는데 물 밖으로 나와서 고통스럽다. 믿음 속에 있으시기 바란다.

오늘은 사무엘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사무엘하는 거의 모든 내용이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하는 ‘다윗서’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성공해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모습도 보여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과 영적인 원리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시고 있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망대와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 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세웠다.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은 부족하더라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과 계약하셨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나 하나님을 알고 아무나 믿지 못한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언약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를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세상에서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분들이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하를 읽는다면 사실적인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사무엘상, 하와 열왕기상, 하에는 인간의 심리와 모략이 많이 나온다. 사무엘하의 요압이라는 장군은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였다. 자기의 복수심 때문에 나라의 안위와 관계없이 죽인 것이다.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에 피해를 줘도 관계없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다.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3천 제자이시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237이시기 바란다. 그게 아니면 자꾸 사탄이 시험거리를 준다.

1. 사무엘하의 전체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 사무엘하서 1장과 2장은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여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잘되고 잘 나가니까 다윗이 범죄하기 시작한다. 11장과 12장은 다윗 왕의 범죄와 회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다윗의 자녀들과 왕국의 많은 갈등과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문제도 많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응답을 많이 받는 회사가 테슬라다.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회사도 테슬라다. 천석꾼은 천 가지 문제, 만석꾼은 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와 후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중직자와 후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아주 심한 악한 일도 못한다. 그런 상태에서 악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모두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배경이 되면 아무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악은 한계가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 참된 승리를 하게 된다. 세상 방법을 어설프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란다. 내 할 일을 잘하면 된다. 22장 전체는 다윗의 찬양이 나온다. 문제와 갈등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다윗은 실패와 문제를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부하 장군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를 붙여주신다. 그게 오력 가운데 '인력'이다. 만민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참된 전문인과 제자를 우리 교회로 붙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24장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구조사와 재앙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드린 장소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단을 쌓은 장면으로 끝내고 있다. 우리는 회개의 단,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가 있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제가 노방전도할 때 어떤 분이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회교를 못 간다고 하더라. 목욕탕은 더러운 사람이 간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문제가 있을수록 교회에 와야 한다. 그래야 해결의 길과 실마리가 보인다.

2. 사무엘하를 통하여 알려주는 "영원한 복음의 망대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째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에 대하여 원수를 갚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즉 '기름 부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직장상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기름부으셨다. 못된 사람일수록 순종해야 한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성정인물들은 악한 왕들을 거둬나케 만들었다.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리스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대적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낸 참 왕, 바른 길을 알려주신 참 선지자,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 참 제사장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름부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이 '영원한 복음의 망대'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있다. 십자가에 걸은, 용서, 희생, 눈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다. 그리스도를 더 묵상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해서 돈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온다. 영적으로 서밋이 될수록 더 많은 걸 요구하신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바란다.

(2)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넘어졌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이 회개의 눈물이 '영원한 복음의 망대'가 되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를 지적 받았을 때 즉시로 회개하였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다. 혹시 넘어지고 쓰러졌을 지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용서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라. 자식들도 잘못해 놓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정당화하면 더 혼난다. 복음의 사람은 남의 많은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들보를 본다. 작은 죄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 지으면 회개하시기 바란다. 날마다 그리스도해라. 잘못하면 바로 회개하시라.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죄를 짓지 않는 게 더 좋은 순간이 올 것이다. 술, 담배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필요가 없어진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신다.

(3)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하 5장 12장을 보겠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그 고백이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원한 복음의 망대'가 될 것이다.

(4) 네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었다. 사무엘하 22장에 나온 다윗의 찬양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22장 2절에서 3절을 보겠다. "이르되 여호와와는 나의 반석이지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지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지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들추려 하고, 잘해도 시기하고 죽이려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방패요, 영원한 망대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이러한 복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인간을 기대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편이다. 이 은혜를 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주는 걸 기대하지 않고 도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는 걸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는 위치에 서게 된다. 복음에 중독되고 예배에 중독되어야 한다. 엔돌핀과 도파민이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와야 한다.

(5) 또한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겠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림을 알고 믿고 있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6) 또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이 예배의 단이 '영원한 복음의 망대'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을 보겠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이 단을 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장소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장소이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새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던 그 장소에서 단을 쌓았던 것이다.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단을 쌓아야 한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되었다. 이 영원한 망대를 전해야한다. 또 여러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오늘은 일곱 망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7대 망대는 성삼위, 보좌,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3가지 뜰이다. 기도문을 함께 읽겠다.

-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 ⑥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 ⑦ 세 가지 뜰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7.7.7의 기도를 무시로 해 보시기 바란다. 237치유서밋의 응답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끝으로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의 주역이 되어 다윗과 같이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모든 후대들과 성도들이 되실 줄 믿는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과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